

정책보고서 2001-03

2001年 障礙人職業再活施設 評價

이선우 임정기

김종인 나운환 박희찬 변경희

양숙미 유동철 이상훈 최재성

2001. 9.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

要 約

1. 障碍人 職業再活施設 評價의 背景과 依倚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의 배경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에서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의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법제화되면서 시작되었음.
 - 재정감사가 시설운영자의 부정, 비합법적인 운영을 찾아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면 시설평가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로 인하여 IMF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민간기업, 공기업뿐 아니라 국가기관에도 구조조정의 흐름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음.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평가도 단순히 공적자금의 효과성을 확인할 뿐 아니라 효율성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이는 경제 위기 속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임.
-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현 실태와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객관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 평가가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도 한국장애인복

지시설향회와 장애인복지시설발전위원회가 초안을 제시한 직업재활시설 운영평가기준으로 2000년에 일부 시설에 대해 실시하였고, 2001년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 실시하였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의 의의

- 정부차원에서 생산적 복지 개념의 확대는 장애인복지 중에서도 직업재활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음.
- 2000년 10월부터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이 시작되면서 장애인 직업재활도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음.
- 그 동안 정부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이 워낙 부족한 상태여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직업재활시설 운영자의 입장에서 시설을 훌륭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필요로 하였음.
- 현재 시설, 인력, 프로그램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기존 재활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입증 받거나 새로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받음.
- 궁극적으로 평가는 서비스 수혜자의 이익을 향상시키게 됨.
- 나아가 평가는 조직내 상호간의 이해와 유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
- 평가를 통해서 운영을 개선하고, 평가의 결과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그 결과에 대해 사회적 인정을 받음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의 목적

- 시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시설의 운영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

- 조직 내의 상호간 이해와 유대를 강화시킴.
-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줌.
- 평가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계획적인 과정으로 서비스 수혜자의 이익을 향상시키고 새로이 시행해야 할 프로그램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프로그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됨.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시설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게 하는 것임.

2. 障 碍 人 職 業 再 活 施 設 評 價 道 具 와 評 價 實 施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도구의 구성

- 2001년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에서 사용한 평가도구는 장애인복지시설발전위원회가 1999년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전문가, 실무자 및 관련 공무원이 참여한 자문회의에서 일부 항목을 개선하여 만들었던 2000년의 평가지표를 일부 보완한 것임.
 - 보완작업은 극히 일부에 한정되었는데, 이는 2001년의 평가 결과가 2000년의 평가결과와 비교되어야 하기 때문임.
- 직업재활시설의 평가 지표는 사업실적,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서비스 프로그램, 인적 자원과 인사, 행정 및 기록, 재정, 지역사회관계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총점을 계산한 후에 전체 근로 훈련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과 소재지 격차를 위한 시도별 재정자립도의 두 가지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위원회의 구성과 평가실시

- 평가팀은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인이 1개 팀을 구성하고, 각 팀에는 1인의 학계전문가를 팀장으로, 1인의 실무자를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결과적으로 전체 10개 팀, 22명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전체 10개의 평가팀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개 시설에 대해 전체 평가팀장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 팀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음.

□ 평가대상시설

- 2001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는 3년 이상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2000년에 평가를 받은 시설을 제외한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작업활동시설 등 68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 실제로 직업재활시설을 평가한 결과, 각 시설의 유형이 별 차이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지난해까지 보호작업장이었던 직업재활시설들이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과 직업훈련시설로 등록을 하면서 시설의 실무자들이 각 유형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음. 그 결과, 일부 시설은 보호작업시설이 가

장 적합한 유형이었으나 직원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작업활동시설이나 직업훈련시설로 등록한 시설임.

-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에 따라 분석한다면 아직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시설의 유형을 불합리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에 따른 분석을 해석하는데 있어 아직은 상당한 주의를 요함.

3. 障碍人職業再活施設 評價結果

□ 사업실적

- 직업평가서비스 연인원을 보면, 평균 142.1명이 연간 직업평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서비스 연인원의 경우 평균 38.9명, 사후지도서비스 연인원의 경우 평균 9.5명으로 나타났음. 직업전교육서비스는 전체 평균 24.7명에 제공되고 있어서 2000년의 평가결과(22.7명)와 거의 비슷함. 직업훈련서비스는 전체 평균 9.3명에게 제공되었음.
- 시설의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직업평가서비스는 작업활동시설(272.0명)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였으며 직업훈련시설(25.0명)에서 가장 적게 제공하였음. 진로상담도 작업활동시설이 9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시설이 14.5명으로 가장 적었음. 사후지도서비스는 직업훈련시설이 20.3명으로 가장 많은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었으며, 보호작업시설이 7.7명으로 가장 적게 제공되고 있었음. 직업전교육서비스는 시설 유형별로는 작업활동시설(38.5명)에서 가장 많이 제공되었고 근로작업시설(6.7명)에서 가장 적게 제공되었음. 직업훈련

서비스는 작업활동시설(13.1명)에서 가장 많이 제공했고 보호
작업시설(7.9명)에서 가장 적게 제공하였음.

- 보호고용서비스는 전체적으로는 28.2명에게 제공하고 있었으며,
지원고용서비스 실인원의 평균은 1.43명임. 전이건수는 평균 1.9
건이었으며, 직원의 자격증 소지율은 평균 69.8%, 직원의 장애
인비율은 8.9%였음. 전년도 수익규모는 평균 4900만원이었음.
- 시설유형별로는 보호고용서비스는 근로작업시설이 44.3명으
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작업시설이 31.5명이었음. 지원고용서
비스를 시설유형별로 보면 직업훈련시설(4.8명)이 근로작업시
설(4.0명)보다 많았고, 보호작업시설(0.6명)이 가장 적었음. 전
이건수는 작업활동시설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직업훈련시설
이 0.8건으로 가장 적었음. 직원의 자격증 소지율은 시설유
형별로는 직업훈련시설이 86.7%로 가장 높았으며, 작업활동
시설도 80.8%로 상당히 높았음. 반면에 근로작업시설은
53.3%로, 생산성을 강조하는 근로작업시설의 특성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직원의 장애인비율을 시설유형에서
보면 직업훈련시설이 16.5%로 가장 높았으며, 작업활동시설
은 1.9명으로 가장 낮았음. 전년도 수익규모는 근로작업시설
이 가장 높고,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의
순으로 나타났음.

□ 조직과 운영

- 시설장은 이사장과 친인척관계가 아닌 시설이 52.9%로 가장 많
았으며, 시설장 자격에 해당하고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
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경우는 36.8%였음.
- 시설유형별 비교에서는 시설장의 자격 및 전문성에서 특히

보호작업시설이 떨어지며, 이사 중 이사장 및 시설장과의 친
족 비율에서는 근로작업시설이 가장 높았고, 직업훈련시설이
가장 낮았음.

- 시설의 설립목적 및 목표의 명확성에서는 ‘구체적 내용은 있으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50.0%로 가장 많았고, 중장기 계획과 추진목표도 설정되어 있는 시설이 27.9%로 전체의 3/4 이상의 직업재활시설이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설립목적 및 운영목표의 명확성은 근로작업시설(4.0점)이 가장 높았고, 작업활동시설(3.31점)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작업시설은 2.89점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음.
 - 시설의 설립 목적 및 운영목표 인지도에서는 근로작업시설(4.0점)이 가장 높았으며, 홍보노력은 작업활동시설이 3.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호작업시설이 3.17점으로 가장 낮았음.
- 연간사업계획 수립과 실제활동에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실제활동과의 연결되지 않거나’ 아예 ‘구조화된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시설도 26.5%에 달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수립이 시급해 보임.
 - 연간사업계획의 수립과 실제활동항목도 근로작업시설이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호작업시설이 2.91점으로 가장 낮았음.
- 운영개선을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정도를 보면, ‘최근 3년간 실행한 적이 전혀 없는’ 시설이 무려 54.4%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회 이상’ 활용한 시설은 14.7%에 불과하여 외부 전문가의 활용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운영개선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활용에서는 작업활동시설이 2.3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근로작업시설이 1.0점으로 가장 낮

았음.

- 생산품 개발 및 판매노력은 자체 생산품을 만드는 시설에만 해당하는 문항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근거가 있으며 최근 1년간 장애인근로자 1인당 총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인 시설이 36.6%로 가장 많았음. 그러나, 1인당 총매출액이 50만원 미만인 시설도 29.2%로 상당히 많았음.
- 생산 및 연계 노력은 하청업체인 시설에만 해당하는 문항으로 원청업체와 2년 이상 계약기간이 시설이 58.8%로 상당수의 시설이 비록 하청업체이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생산품 개발 및 판매 노력에서는 근로작업시설이 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작업활동시설이 2.11점으로 가장 낮아서 단순 작업에 치중하는 작업활동시설의 특성을 보여주었음. 생산품 판매 및 연계 노력에서는 오히려 보호작업시설(3.41)이 가장 높고 근로작업시설(3.0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시설과 설비

- 대부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접근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주차공간의 확보는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또한 부대설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시설유형별 시설과 설비영역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근로시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프로그램

-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직업재활시설이 근로장애인에 대한 만족

도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시설유형별 서비스 영역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서비스정보 제공에서는 근로작업시설(4.0점)이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근로작업시설(2.67점)이 가장 높았음.
- 개별화계획에서 전체 근로훈련장애인의 개별화된 서류를 갖고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23.5%에 불과하였으며, 일부 근로훈련장애인의 개별화된 서류를 갖추고 있는 시설은 38.2%였음.
 - 개별화 계획에서는 작업활동시설(3.15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작업시설(3.0점)이 비슷하게 나타났음. 반면에 직업훈련시설(2.67점)과 보호작업시설(2.63점)과 비슷하게 낮았음.
-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에서 최근 1년간 종합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시설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종합평가를 시행한 시설은 1.5%로 극히 적었음.
 -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에서는 근로작업시설(2.6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작업활동시설(2.23점), 직업훈련시설(2.0점), 보호작업시설(1.65점)로 상당히 낮았음.
- 전반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충처리절차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근로장애인의 고충처리 절차에서는 특히 보호작업시설에서 고충처리절차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에서는 연계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시설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지역연계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관의 특화 프로그램에서는 특화프로그램이 1~2개 정도 있는 시설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특화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시설 또한 25.0%로 상당히 많았음.

- 사례회의에서는 사례회의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시설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근로장애인의 20% 이상에 대해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16.2%에 불과했음.
 - 사례회의에서는 직업훈련시설(2.83점)이 가장 높았으며, 작업활동시설(2.08점), 보호작업시설(2.07점), 근로작업시설(1.67점)의 순으로 낮았음.
- 근로작업시설을 제외한 직업재활시설의 근로훈련장애인 대 직원의 비율은 10인당 1인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1~15인당 1인이 29.2%였음. 20인 이상당 직원이 1인인 시설도 23.1%에 이르고 있어서 근로훈련장애인에게 수준 높은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줌.
 - 근로·훈련장애인 대 직원 비율은 직업훈련시설(3.83점)이 가장 높았으며, 작업활동시설(3.31점), 보호작업시설(2.39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 근로작업시설을 제외한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임. 작업활동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의 수당을 보면, ‘훈련장애인의 생산성에 따라 작업을 통한 수익으로 수당을’ 주는 시설이 78.9%로 가장 많았으며, 수당을 전혀 주지 않는 시설도 10.5%에 이르고 있음.
- 직업재활시설에서 재활프로그램의 다양성 정도는 양 극단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재활프로그램의 다양성에서는 작업활동시설(3.38점)이 가장 높아서 다양한 개인사회적응훈련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직업훈련시설(3.17점)도 상당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근로작업시설(2.67점)과 보호작업시설(2.39점)은 생산에 치중을 하기 때문

에 재활프로그램의 다양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외부직업배치율은 연간 전체 근로장애인의 5% 미만이 61.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장애인이 더 나은 시설로의 전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외부직업 배치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유형은 직업훈련시설(5.0점)이며, 작업활동시설(3.38점), 보호작업시설(3.22점), 근로작업시설(2.67점)의 순으로 나타남.

□ 인적자원과 인사

- 인력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행정상의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설유형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교육훈련기회의 균등 제공에서는 작업활동시설(3.69점)이 가장 높았고, 근로작업시설(3.67점)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보호작업시설(3.35점), 직업훈련시설(3.33점)이 낮게 나타났음. 복무규정에서는 근로작업시설(4.0점)과 작업활동시설(3.92점)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작업시설(3.67점)과 직업훈련시설(3.50점)이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음.
- 직원복리후생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상당히 이직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직원복리후생제도에서도 근로작업시설(3.67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작업활동시설(3.31점), 보호작업시설(3.13점), 직업훈련시설(3.0점)이 비슷하게 나타났음. 그러나, 최근 2년간 직원의 연평균 이직률에서는 보호작업시설(3.67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작업활동시설(3.0점)과 직업훈련

시설(2.83점)이 그 뒤를 따랐고, 근로작업시설(1.67점)은 상당히 낮았음.

- 직원의 전문자격에서 시설장과 총무, 직업훈련교사 모두 최소자격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시설이 10.3%, 모두 최소자격기준만 갖춘 시설이 4.4%로, 아직 직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임.
 - 직원의 전문자격유무는 근로작업시설(3.67점)이 가장 높았고, 직업훈련시설(3.33점), 작업활동시설(3.08점), 보호작업시설(3.07점)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행정과 기록

- 기록에 대한 수퍼비전에서 수퍼비전을 전혀 하지 않는 시설이 64.7%로, 직업재활시설에서 수퍼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은 산재, 상해보험, 화재보험(대인), 화재보험(대물)의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에 가입한 시설이 45.6%로 가장 많았으며, 한 가지에 가입한 시설이 29.4%, 전혀 가입하지 않은 시설도 7.4%에 이르고 있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위험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행정 및 기록영역에 대한 시설유형별 비교에서는 근로작업시설이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시설도 1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법적 의무도 준수하지 않는 직업재활시설이 상당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근로장애인들의 임금체불

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없다’는 시설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임금체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사회관계

- 지역사회관계에서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반적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시설유형별로 지역사회관계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시설개방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운영위원 중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의 비율에서는 아직까지 근로작업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운영위원회의는 개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서는 직업훈련시설(2.50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직업훈련시설(2.46점), 보호작업시설(2.17점), 근로작업시설(2.0점)이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정보화노력이 요구됨.

□ 상관관계

- 총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맺는 영역으로는 서비스 프로그램(0.873), 조직과 운영(0.827), 지역사회관계(0.817), 시설과 설비(0.764), 행정 및 기록(0.755) 등이었으며, 총점과 사업실적(0.689), 인적자원과 인사(0.632)의 상관관계는 약간 낮았지만 여전히 높았으며, 재정(0.379)이 가장 낮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음.
 - 그러나, 장애인수(0.243), 중증장애인수(0.276)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았고, 중증비율과 재정자립의 가중치를 위한 변수

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보호작업시설을 대상으로 각 변수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보호작업시설에서도 총점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영역은 서비스 프로그램(0.901)이었으며, 조직과 운영(0.860), 지역사회관계(0.8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과 설비(0.788), 행정 및 기록(0.730), 사업실적(0.728), 인적자원 및 인사(0.685)도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반면에 여전히 재정(0.305)은 상관관계가 낮았으며, 장애인 수, 중증장애인 수, 중증비율, 재정자립은 모두 총점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작업활동시설을 대상으로 각 변수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서비스 프로그램(0.908), 조직과 운영(0.821), 지역사회관계(0.802) 등이었음. 시설과 설비(0.776), 행정 및 기록(0.771), 사업실적(0.740)은 이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여전히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인적자원과 인사(0.506), 그리고 재정(0.34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직업훈련시설을 대상으로 각 변수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총점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는 지역사회관계(0.961), 서비스 프로그램(0.938), 재정(0.882)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시설 유형에서 총점과 재정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직업훈련 시설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사업실적,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인적자원 및 인사, 행정 및 기록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각 평가영역별로 총점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조직과 운영 부문에서는 시설의 설립목적 및 운영목표의 인지도(0.618)가 가장 높으며, 운영개선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횟수(0.597), 시설사업의 홍보 노력(0.580),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실제활동(0.54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조직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시설의 설립목적 및 운영목표가 명확하며, 이를 직원과 근로장애인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을 개선하고, 시설사업의 홍보 노력, 목적 및 목표에 따른 연간사업계획의 수립과 활동이 직업재활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시설과 설비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장애인에 대한 부가적 서비스(재활상담, 집단활동, 자원봉사자실, 의무실 등)에 대한 지원을 시설측에서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대설비 항목(0.581)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또한, 작업의 안정성(0.523)등과 같은 작업 안전에 대한 항목과 휴식 및 후생설비(0.498) 등에 대한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작업실 면적(0.247), 시설내 편의시설 설치상태(0.282), 작업설비(0.296) 등이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프로그램영역에서는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0.638)이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만족도 조사(0.630),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0.630), 사례회의(0.599), 근로장애인에 대한 고충처리 절차(0.587), 개별화 계획(0.549) 등의 순으로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
- 인적자원 및 인사영역에 있어서 총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항목으로는 직원의 복리후생제도(0.482), 직원의 복무규정(0.472), 교육훈련기회의 균등제공(0.466), 직원의 채용 합리성(0.373), 직원의 전문자격 유무(0.364) 등이었음.

- 행정 및 기록영역에서는 문서비치 상태(0.659), 기록에 대한 수퍼비전(0.534), 직원대비 컴퓨터 비율, 시설의 전자메일주소 소유 및 인터넷 활용도, 시설의 홈페이지 소유여부, 근거리 통신망 소유여부 등의 정보화 수준(0.5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재정영역은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중 후원물품의 관리(0.363), 예산집행의 투명성(0.310), 회계업무의 투명성(0.239)등이 높게 나타났음. 반면 임금 대 수익금의 비율(0.082), 장애인 임금체불기간(0.047)은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실습지도 인원(0.571), 지역자원활용 정도(0.567), 자원봉사자 교육(0.495), 자원봉사자 총수(0.489) 등이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음. 그 외에도 시설운영위원 중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의 비율(0.406), 인터넷상의 홈페이지(0.396), 시설의 개방성(0.378) 등도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적으로 총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항목은 행정 및 기록영역의 문서비치상태, 서비스 프로그램 영역의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서비스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 조직과 운영영역의 시설의 설립목적 및 운영목표 인지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서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제공해야만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평가영역별 분석

- 근로작업시설의 경우, 사업실적은 평균 8.67(100점 만점 환산시 78.79)점, 조직운영은 평균 33.67(84.17)점, 시설과 설비 평균 50.33(91.52)점, 서비스 프로그램 평균 44.33(69.27)점, 인적자원 및 인사 평균 29.67(82.41)점, 행정 및 기록 평균 18.33(91.65)점, 재정 평균 18.0(90.0)점, 지역사회 관계 평균 22.0(78.57)점으로 나타났다. 총점의 평균은 225.0점으로 100점 만점 환산시 86.87점으로 2000년 평가의 76.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 영역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행정 및 기록, 시설과 설비, 재정의 점수가 높은 반면 서비스 프로그램과 지역사회관계는 상당히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작업시설의 경우 사업실적은 평균 7.74(70.36)점, 조직과 운영은 평균 29.83(74.57)점, 시설과 설비영역에서는 평균 42.52(77.31)점, 서비스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평균 36.15(56.49)점, 인적자원 및 인사영역에서는 평균 20.48(85.33)점, 행정 및 기록 영역에서는 평균 14.07(70.35)점, 재정에서는 평균 16.89(84.46)점, 지역사회 관계에서는 평균 18.02(64.36)점으로 나타남. 총점은 평균 185.70(71.70)점으로 2000년의 평가결과 78.9점에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영역별로 보면, 인적자원 및 인사와 재정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설과 설비, 조직과 운영도 비교적 괜찮은 평가를 받았음. 그러나, 서비스 프로그램과 지역사회관계는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작업활동시설의 경우 사업실적은 평균 7.54(68.53)점, 조직과 운영은 평균 31.85(79.62)점, 시설과 설비영역에서는 평균 43.0(78.18)점, 서비스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평균 46.92(73.32)점, 인적자원 및 인사영역

역에서는 평균 20.92(87.18)점, 행정 및 기록 영역에서는 평균 14.85(74.25)점, 재정에서는 평균 17.92(89.62)점, 지역사회관계에서는 평균 19.92(71.15)점으로 나타남. 총점은 평균 202.92점(100점 만점에 78.35점)으로 나타남.

- 영역별로 보면, 재정영역과 인적자원 및 인사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사회관계, 서비스 프로그램 영역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보호작업시설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비스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반면에 사업실적에서는 보호작업시설이 작업활동시설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시설의 사업실적은 평균 7.50(68.18)점, 조직과 운영은 평균 31.0(77.50)점, 시설과 설비영역에서는 평균 39.83(72.42)점, 서비스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평균 45.0(70.31)점, 인적자원 및 인사영역에서는 평균 19.83(82.64)점, 행정 및 기록 영역에서는 평균 14.0(70.0)점, 재정에서는 평균 14.48(72.42)점, 지역사회관계에서는 평균 18.83(67.26)점으로 나타났음. 총점은 평균 190.48점(100점 만점에 73.35점)으로 나타났음.
- 영역별로 보면, 인적자원 및 인사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사회관계, 사업실적, 서비스 프로그램 영역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그러나, 보호작업시설에 비해서는 조직과 운영, 서비스 프로그램, 지역사회관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반면에 사업실적, 시설과 설비, 인적자원 및 인사, 재정에서는 보호작업시설이 직업훈련시설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작업활동시설과 비교하면, 모든 영역에서 작업활동시설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4. 政策建議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와 발전 방향

- 시설유형을 등록하면서 시설의 실제 형태와는 맞지 않게 등록한 사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한 기간을 거치면서 시설에 맞도록 시설유형을 재등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 특히 시설유형에 대해 시설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시설유형에 따른 지원의 차별화 및 운영지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한편으로, 현재의 구분보다는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생산중심), 작업활동시설(치료중심의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포함)의 세 분류가 타당하며, 평가를 통해서 시설을 자연스럽게 모델화하여 유형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아직 시설유형의 분류가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2001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는 3개소의 근로작업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애인생활시설 부속 직업재활시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생활시설의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됨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이 형식적인 면이 많고, 실질적인 직업재활과정으로 장애인의 훈련과정, 소득확보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직업재활시설은 지역사회에 재가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 직업재활시설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의 보강이 생활시설 부속 직업재활시설에서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직업재활시설이 전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지원센터가 필요하며, 이는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적극적으로 운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의 문제와 제언

- 생활시설부속 직업재활시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방법상의 문제
 - 부속되어 있는 시설(직업재활시설)에서는 상위시설(생활시설)의 서류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실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상위시설에 대한 평가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음.
 - 또한, 현재의 인력수준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갖추기 어려운 서류들도 있음.
 - 현재의 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는 생산중심의 시설보다는 서비스제공중심의 시설에 더 적합한 것이 사실임.
 - 따라서, 평가지표도 생산중심의 시설과 치료중심의 시설로 구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평가시기 문제
 - 두 개 시설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평가대상 시설의 실무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 또 평가방법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임.
- 평가대상시설의 시설 설비를 어떻게 한정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

- 시설 신고를 할 때 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근로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을 포함시키면 생활시설의 시설물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것임.
- 자체평가의 문제
 - 자체평가를 높이 하게 되면 이를 수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며, 평가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의 문제가 있음.
 - 그러나, 자체평가는 학습효과가 상당히 높으며, 현장이 열악한 상태에서 자체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가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고려해야 할 점
 - 직업재활시설을 평가한 결과를 초기에는 시설을 서열화하고 예산의 불이익을 주는데 사용하기보다는 교육과 개선을 주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임.
 - 평가방법에 있어서 2000년과 2001년처럼 평가단을 임시로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상설평가단이 구성되어야 함.